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20호 [루계 제2275호]

주제 103

(2014). 5

17

토요일

음력 4. 19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을 찾으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비행기가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 도착하자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 리병철 조선인민군 항공군대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련합부대장조와 군부대장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대회가 시작되자 요란한 폭음이 울리는 속에 붉은 매들이 련속 하늘로 날아올랐다.

비행지휘성원들은 금상승반전, 전투선회비행, 정지비행, 1만 8,000여m의 상승한도비행, 30m의 초저공비행, 공중기교비행 등 어려운 비행동작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목표구역에 명중탄을 펴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파감하고 능숙한 비행훈련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오전 경기가 끝난 다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서 마련한 야전식사에 초대되었다.

점심식사의 여가시간에 조선인민군 항



자폭정신이 탄생한 고향부대이라 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보아하신 비행기를 돌아보시면서 사적비행기관리를 잘하고 만단의 출격태세를 갖추어 놓음으로써 언제나 비행훈련의 맨 앞장에 세우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행훈련실에 들리시여 비행사들이 진행하는 지상비행조종련습기재를 통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비행사들의 침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군부대를 항공군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마음먹고 꾸리며 전투근무구역과 생활구역은 물론 요소요소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군부대 비행사들과 육탄용사들의 안해들이 출연하는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박하고 진실한 공연을 보면서 군부대 비행사들과 안해들의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뜨겁게 읽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싸움준비에 비약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국의 푸른 하늘을 더욱 굳건히 지켜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공 및 반항공군협주단의 공연과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연주회가 진행되어 경기대회의 열기를 한층 북돋아주었다.

오후에도 계속된 경기대회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오금철 항공군상장을 비롯한 비행지휘성원들이 멀찍이 폭음을 높이 울리며 어제날의 자기들의 비행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포같은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포같은

첨단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황병서 조선인민군 차수가 시상식발언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승을 쟁취한 비행지휘성원들과 단위에 직접 시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담례를 보내시며 비행기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흡 7련대침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장소에는 또다시 폭포같은

첨단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의 경기성과를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꾸리자면 설계와 시

공을 잘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앙의 관록있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발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

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시고 공장현대화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전설한 혁명사적판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이 가까운 기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

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꾸리자면 설계와 시

공을 잘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중앙의 관록있는 설계집단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발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업소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

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조선로동당의 경제정책관철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기를 보시면서 인민군대의 체육인들이 사상전, 투자전, 속도전, 기술전의 위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기에서는 소백수팀이 2:0으로 이겼다.

경기가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며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하여 축구기술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체육선수들과 감독들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림으로써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종목에서 세계체육전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세계의 창공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겠다는 불타는 열정을 안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생명이 경각을 다루는 위기일발의 시각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여 불발탄을 순록시키고 최후를 마친 영웅한 사람들의 미거는 지금도 그 어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황해남도민보안국 보안원들이 지난 세기 조국해방전쟁에 미군비행기에 의해 투하돼 여직적 땅속에 묻혀있은 불발시한탄을 제거해 인민의 생명과 도시의 안전을 지킨 고귀한 위훈에 대한 이야기이다. 각일각 생사를 가르는 위급한 정황에서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처자와 가정보다도 먼저 사회와 집단을 생각하며 한목숨 기꺼이 바친 폭발물 처리대원들의 소행은 인덕이 사랑을 냉고 사랑이 온 사회에 차넘치는 이 나라 대가정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악육강식이 사회의 생리로 되는 사회, 사람의 인격가치가 금전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위선과 허위, 부익부와 범익빈이 만연하는 제도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리상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 그리스도교지도자 빌리 그라함

숭고한 인덕이 낳은 리상사회

목사도 『조선에 한해 서는 설교가 불필요하다. 이나라는 성서의 교리들이 이미 실현되어 예수가 꿈꾼 리상사회다. 에멘동산이 아니라 주체의 학원이 지구촌에 태여 난 민중복락의 동산이다.』라고 감복을 토로한바있다. 명백하게 전인의 부귀와 향락을 추구하고 오직 돈이면 그만인 사회나 제도에서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지휘관이나 병사들을 위해 터지는 수류탄도 한몸으로 막아나서고 강물에 빠진 자기 딸을 잃으면서도 님의 말을 구원하고 총각처녀들이 영예군인의 반려자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부양자가 없는 로인들을 친자식, 친부모처럼 돌보며 사는 것과 같은 소행은 하나는 전제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인 생활기풍이 지배하는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미거인 것이다.

무릇 인덕이 없는 사회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다고 일

렸다. 물없는 황막한 사막에서 꽃이 필수 없는 것처럼 인덕이 없는 사회에서 인간의 미덕이나 화목이 있을 수 없다. 예로부터 인간은 덕망높은 인물을 성인으로 존경하고 따랐고 인덕이 지배하는 사회를 갈망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향유하는 것은 령도자의 인덕정치가 낳은 현실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인덕의 최고화신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신 삶의 은인이고 보호자이시였으나, 인민은 자신의 삶불이였고 천만자식과도 같았다.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는 령도자의 숭고한 덕망과 인덕정치는 온 나라에 현실로 구현되어 전체 인민이 아름다운 령도자에게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혼신하며 고락을 같이하는 혼연일체의 대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경기도를 통하여 기어이 구원하고 하신 사설, 인민을 위해 밤이 달도록 뛰어온 광차밀에 비호 같

이 뒤던 한 일군이 운명했다는 비보를 접하신 그때 현지지도의 길에서 되돌아오시여 진아이들을 구원했고 친혈육의 눈에서 구걸막을 떼내 앞못보는 환자에게 광명을 주는 아름다운 소행은 너 아니면 나라는 천박하고 리기적인 인간들이 생존경쟁을 하는 사회나 제도에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꿈같은 현실인 것이다.

공화국의 이러한 현실을 체험한 홍정자재미동포는 『그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의 행위이며 사랑의 열매이다.』라고 방문소감을 펴냈다. 우크라이나의 한 학계 인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절대식하는 사람들로서는 초등수학만을 배운 학생들이 고등수학을 깨치기 힘든 것처럼 조선인민의 혈연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현하여 인민들을 광명으로 이끌어주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운명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령도자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며 혼연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기의 견해와 공감을 표시했다.

위인의 인덕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인덕의 높이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높이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은 그 열도와 혼신성에 있어서 가장 뜨겁고 용심깊고 고결한 사랑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인덕정치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에 의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민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사랑에 의해 이 땅우에 인민의 티파와 꿈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그이께서는 인덕의 정치를 베풀시여 온 나라에 서로 돋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도록 하시였다.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환물을 기꺼이 바친 힘을 펴려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학계 인사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절대식하는 사람들로서는 초등수학만을 배운 학생들이 고등수학을 깨치기 힘든 것처럼 조선인민의 혈연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현하여 인민들을 광명으로 이끌어주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운명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령도자를

인민사랑의 창조물

괴뢰파당은 명령구리의 입덕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12일 괴뢰국방부 대변인 김민석이라는 명령구리가 주제넘게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감히 모독하는 미친 소리를 쳐댔다.

해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 더러워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통으로 게바라나와 더러운 주동이를 우물거리며 내뱉은 소리가 너무 허망하여 들는 사람들이 귀가 더럽혀질 지경이다.

명색이 그래도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놈이 그 무슨 정례기자회견이라는데 나타나 제놈들이 조작해낸 『북무인기사건』을 두고 또다시 횡설수설하다 못해 『제속 거짓말하는 협력사퇴행적인 나라』,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면서 이 세상 가장 자주적이며 임인적인 존엄높은 우리의 신성한 국가주권까지 걸고들었는데 지금 내외가 김민석놈의 어처구니없는 정신착란하게 나발에 경악을 긁치 못하고 있다.

얼마나 허스레적망발을 내뱉었으면 우리에 대한 시비질에 이끌려 난 괴뢰보수언론들까지 『사식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를 어떻게 공식기자회견에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방부가 『양치기소년의 오우』에 빠진것 같다』,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정신나간 발언』이라고 하며 즉시에 비난해 나섰겠는가.

괴뢰파당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지껄였지만 이번처럼 혐악한 악다구니를 쳐치는 처음이다.

남조선에서 이른바 대변인이라고 나서는 놈치고 변변한 자 없어 외국행각에 따라나라가 성추행을 하여 개망신을 하는가 하면 거짓파 기만을 일삼

으며 철면피하게 돌아대여 비난조소의 대상으로 되기 일쑤이지만 특히 김민석놈이 말질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그야말로 미물보다도 못한 벌벌치 같은 놈이다.

사실 미국의 제일 더러운 곳만 핫는 식민지노복중에서도 특등노복이 괴뢰국방부이다.

자기의 군통수권자 가지지 못하고 수십년을 미국의 줄개로 살아온은 도 모자라 상점이 넘겨주겠다는 『작전지휘권』을 따고 또다시 횡설수설하다 못해 『제속 거짓말하는 협력사퇴행적인 나라』,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니 뭐니 하면서 이 세상 가장 자주적이며 임인적인 존엄높은 우리의 신성한 국가주권까지 걸고들었는데 지금 내외가 김민석놈의 어처구니없는 정신착란하게 나발에 경악을 긁치 못하고 있다.

그 주제에 낫뜨거운줄도 모르고 『국방부』 대변인이 래시고 기사를 불러대여 말도 되지 않는 혐담질을 마구 해대고 있으니 파연 한방망이 얹어맞지 못해 몸살난 놈이 분명하다.

박근혜 같은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김민석놈의 이번 악당은 물에 빠진 자 지푸래기 잡는 격으로 타쳐드는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혀등대는 박근혜파당의 물끌을 집중적으로 드러낸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라없는 망국노의 설을 삼키지 않으면 안되었던것도 외세에게 국권과 평통을 송두리채 빼앗겼기때문이다.

세월은 펴거나 훌렀지만 아직도 주권없는 세상이 남조선이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대통령』이 미국상전을 할애비로 섬기고 정치인들이 저마다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 미국 행을 뻔질나게 하는것이 하나의 정치풍토로 되고있다. 미

지금 박근혜파당은 전대미문의 려객선침몰참사 등으로 헤어날수 없는 최악의 위기에 몰려왔다.

『청와대』로 무섭게 육박하는 민심의 분노를 괴해보기 위해 『4월혁신협약』, 『북무인기』 광대국을 련속 연출하였지만 오히려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고 6월초에 있게 될 지방자치체선거에서도 대참패는 불보듯 뻔한 일로 되고있다.

더우기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통해 파시된 우리의 군사적위력앞에,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결정체인 송도국제소년단아영소에서 메아리치는 아이들의 행복님친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가장 환비백산에 있는것이 미국의 전쟁머슴군, 반인민적악정의 장본인인 박근혜파당이다.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박근혜와 그 출제들이 사면초가의 신세에서 벗어나보려고 미친개마냥 젖어대며 우리를 걸고들어 기어코 전쟁이라도 일으켜볼 심산인것 같은데 이아 말로 설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광란이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살해질을 해면 김민석놈과 그 조종자들을 이제라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괴뢰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수 없게 될것이며 비판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나불거리고있는데 그들이야말로 핵몽동이찌질을 부르는 얼간이들이다.

김민석놈이 『나라가 없어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나발질하였지만 민심의 저주속에 지속으로 침몰하는 남조선의 초상침살풍경과 위대한 인민사랑정치, 후대사랑정치로 온 나라 인민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티상향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모습을 대조해볼 때 파연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될 『나라』가 어디에 없어져야 할 『정권』은 누구인가 하는것이 명백하다.

김민석파 같은 팔작동이의 입질이 초록하 불벼락으로 없어지게 될것이야말로 남조선의 『청와대』이고 식민지체제라는것을 토크히 알아야 한다.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를 련일 저지르고있는 괴뢰역적파당과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면 오직 무자비한 정벌만이 남이있을뿐이다.

남녘의 민심도 온 남조선땅을 초상집으로 만들어놓은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비애와 원성에는 아랑곳없이 북남대결의 국대화로 더 큰 재앙을 몰아오고있는 박근혜파와 그 출제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끌어내리라고 절규하고있다.

박근혜는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살해질을 해면 김민석놈과 그 조종자들을 이제라도 당장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괴뢰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수 없게 될것이며 비판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주제 103(2014)년 5월 13일
평양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아 써준 글이나 주절주절내는 꼴을 보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기 그지없다.

우리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당할자 없는 최정예강군이 있고 억척같이 벼려놓은 핵무력이 있다.

박근혜는 소갈머리없는 계집년이 『대통령』을 해먹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제일 허약한 나라 아닌 『나라』의 『국방부』 대변인자리에 앉

반역《정권》하에서 불행과 재난이 가시여질수 없다

대
담

남조선인민들과 온 겨레의 재앙거리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날을 따라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사기자는 남조선정세전문가 안세영파 대답을 가지었다.

기자: 먼저 려객선《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남조선 민심의 동향이 어떤지 말해 줄 수 있는가?

안세영: 전라남도 진도 앞 바다에서 려객선이 침몰하여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한달이 되었다.

이 기간 온 남조선 땅에 눈물바다로 변하고 도처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더우기 사고파정에 드러난 박근혜《정권》의 비인간적 행위들로 책임회피, 강압적인 어른통제와 《북풍》물이 등이 내외의 커다란 비난파 격분을 자아냈다.

남조선 각계 층은 《정부》는 살인마》, 《더이상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대통령〉 필요 없다》 등

의 구호를 휘치면서 초불시위, 침묵시위, 《초불평화대행진》을 비롯한 각종 시위 투쟁들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전 지역에서 벌어진 반《정부》집회와 시위에는 40여개 단체의 연 1만 5 000여명이 참가하였지만 5월에 들어와 5일까지 사이에 160여개 단체에 연 20여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지지를 이 려객선《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20%나 떨어졌다고 한다.

동시에 동족파는 한사코 대결을 추구하면서 체제대결, 《흡수통일》 암장을 꽂아들여 《한미동맹 강화》를 서부령했는가 하면 온갖 야망을 떨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를 구걸하는 등 력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추악한 사대미국노의 본색을 드러냈다.

동시에 동족파는 한사코 대결을 추구하면서 체제대결, 《흡수통일》 암장을 꽂아들여 《한미동맹 강화》를 서부령했는가 하면 온갖 야망을 떨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를 구걸하는 등 력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추악한 사대미국노의 본색을 드러냈다.

기자: 남조선인민들의 대

중적투쟁은 박근혜《정권》

에 대한 쌓이고쌓인 민심의 폭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안세영: 그렇다.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출현한 때로부터 1년 수개월이 된다.

그동안 박근혜《정권》의

행적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반인

민족적악정으로 훌려온 나날이

였다고 말할 수 있다.

울해에 들어와서도 북남판계 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서해 5개 섬 열점수역에서의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으로 대답해나섰는가 하면 미국의 《B-52》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끌어들여 하루종일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연습에 돌아치게 하고 끝내는 도발적인 《키리풀브》, 《독수리》복침전쟁연습의 강행으로 노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마저 파탄시켜버렸다.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훨씬는 비방증상에 열을 올리다 못해 최근에는 그 무슨 《잃어져야 할 나라》니 뛰어나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불어댔다. 박근혜당의 반민족적행위로 동족대결이 국도로 격화되고 조선반도에 연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

《국민행복시대》니, 《민생복지》니 하는 것들은 다 날아나버리고 《경제혁신3개년계획》과 《규제완화》, 《의료민영화》와 같은 재벌위주의 경제정책들이 추진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반인민

적악정 역시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집권후 입버릇처럼 외우던</p

지난 5월 12일 평양의 고려호텔에서 공화국의 투자환경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가 진행되었다. 투자설명회에는 제17차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전람회대표단 성원들과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투자설명회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투자안내》라는 제목의 다매체편집물이 방영되었다.

이어 연단에 나온 김명룡 합영투자위원회 과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정책과 투자환경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공화국은 가까운 몇 해안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일과생 산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있으며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우면서 협력기술로 개신하기 위한 목표밀에 다른 나라들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우리는 주요인방인 로씨야기업들과의 철도운수부문협조사업,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환율평, 위화도경제지대를 중국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각 도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꾸려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관광업발전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원산지구와 철보산지구를 현대적인 관광지구로 꾸리는데 필요한 투자도 환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모략선전과 고립 압살책동이 날로 우습해지고 있지만 고도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전 체 인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되

성공적인 11회, 유리한 투자환경

◆ 투자환경, 개발계획과 관련한 투자설명회 진행 ◆

여 있으며 가장 우월한 전반적 무료의 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국가에 의한 주택 및 직업보장, 사회보장제와 같은 혜택 속에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종족, 신앙, 당파, 지역 및 계급간 대립과 모순이 없고 실업과 파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화국정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령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하고 있으며 투

석관, 체취, 기계, 전자, 선박건조, 건재 등 중공업과 식료가공, 방직, 광업, 수산업, 립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조화롭게 발전된 다방면적인 경제로대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자들이 자기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실례로 기업소득세는 25%이다. 장래대상으로 규정된 기업인 경우 기업소득세율은 25%로부터 10%로 낮추어 적용되어 리윤이 난 해로부터 3년 간 100% 면제 그후 2년간 50% 반환해준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밀천으로 되는 200여종의 유용한 금속 및 비금속광물들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혼연파마그네사이트, 희토류금속재 장량은 세계적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반적 12년제 무료의 무교육제와 300여개의 각종 대학 및 전문학교들에서 교육받은 준비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발표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비롯한 수입여객의 외국투자 판계법 규제를 새로 제정, 수정, 보충하여 외국인들의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였다.

최근 공화국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와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투자를 받아들이는데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에 대한 제한은 차가운 평가이며, 투자자에게는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관계자들이 봄비였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영의에 의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적 회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굴착기와 대형 자동차를 비롯한 중형기계생산에서 자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중국의 서공집단유한공사에서 온 한 기업가는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리기 시작한 때부터 해마다 참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빠르게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발전속도에 감탄하고 있다. 종형기계

을 하지 않으며 투자가의 출자비율은 합营 또는 합작방법에 합의하여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와 자동차리용세 등 몇 가지에 불과하며 자본세, 등록세, 원천세 등 다른 나라들에 보편적인 많은 세금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합영투자위원회가 국내외 합영투자사업 전반을 맡아보는 정부기관으로서 공화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마련해 주어 훌륭한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리성혁 합영투자 위원회 부국장이 투자자들의 위원회로 되고 있는 원산-금강산지구개발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원산-금강산지구는 크게 원산지구와 통천지구, 금강산지구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서 이 지구에는 142개의 력사유적과 11개의 백사장, 7개의 해수욕장과 9개의 자연호수, 676개의 관광명소, 4개의 팽창자원과 328만여의 감자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의 영업법위내에서 수출입권한을 가지게 되며 장려부문에 투자한 기업은 전력 및 용수 사용료를 우대적인 낮은료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영외환업무 은행이나 외국투자은행에 돈자리를 둘수 있으며 합법적인 소득을 세금없이 해외에 송금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투자대상들을 소개한다면 사동지구의 1,000정보 온실건설대상, 린비료광산 현대화 및 린비료 생산대상, 대내기생산대상, 선박건조 및 수리업봉사대상, 선박수리 및 수리업봉사대상, 선박수리 및 수리업봉사대상,

초무연란의 종합적 리용대상, 탄광현대화 및 무연탄생산대상, 어구자재 및 수산물생산대상, 각종 농기계생산, 감자전분생산대상, 마감건재생산대상 등이며 자연에 네르기리용과 하부구조설대상들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원산에는 송도원해수욕장과 명사십리해수욕장, 송도원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원산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식령산줄기에는 10여개의 스키주로와 애외스케트장과 같은 판광시설들과 국제경기도 할수 있는 스키장지구, 아담하면서도 산물맛이 나는 마식령호텔이 있으며 울령명승구역에는 울령폭포와 구슬폭포, 비단폭포, 담소들로 이루어진 판광명소들이 있다.

원산시에서 남쪽으로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통천지구에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총석정과 동정호, 시중호와 같은 자연호수들이 있어 관광에 유리하다.

그는 금강산 역시 기묘함과 웅장함,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산으로서 이 지구의 개발에 여러 나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서

원산-금강산지구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원산시의 서북쪽에 위치한 마식령산줄기에는 10여개의 스키주로와 애외스케트장과 같은 판광시설들과 국제경기도 할수 있는 스키장지구, 아담하면서도 산물맛이 나는 마식령호텔이 있으며 울령명승구역에는 울령폭포와 구슬폭포, 비단폭포, 담소들로 이루어진 판광명소들이 있다.

원산시에서 남쪽으로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통천지구에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관광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총석정과 동정호, 시중호와 같은 자연호수들이 있어 관광에 유리하다.

그는 금강산 역시 기묘함과 웅장함,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명산으로서 이 지구의 개발에 여러 나라 투자자들이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하면서

금강산지구개발계획도 판광시설을 더 늘이고 속박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에서 작성되었다.

하부구조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그는 원산비행장은 하루 수천명 능력으로 새로 건설하며 원산-금강산판광도로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속판광철길을 건설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원산시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판광지구들과 함께 고유한 판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판광지로서 조선동해의 진주라고 불리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원산-금강산지구개발은 세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해안판광개발을 실현하는 훌륭한 본보기로 될것이라고 이 개발에 참가하는 세계 여러 나라 투자자들에게 만족할만한 경제적리듬을 가져다주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투자설명회는 여러 나라의 기업관계자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설명회가 끝나자 중국료녕성에서 온 기업가 리남은 《좋은 설명을 들었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뛰어나게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가지고 있는 조선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관광자원이 참으로 많다. 해마다 여러 기업가들을 데리고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해왔는데 원산-금강산판광지구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채하산동성유정단유한공사의 리사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막강한 경제제도, 무장한 자원부원을 가지고 있는 조선이야말로 리상적인 투자환경이 마련된 곳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농기계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조선과 경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의향을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흥법식



김명룡 합영투자위원회 과장

자기의 요구에 맞는 경제개발을 실현하는데 힘을 넣고 있으며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우면서 협력기술로 개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각 도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꾸려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우리는 주요인방인 로씨야기업들과의 철도운수부문협조사업,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환율평, 위화도경제지대를 중국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각 도들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꾸려 여기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는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 발표한데 이어 1990년대에 외국투자와 관련한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비롯한 수입여객의 외국투자 판계법 규제를 새로 제정, 수정, 보충하여 외국인들의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법률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였다.

최근 공화국정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와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계속 넓혀가고 있다.

투자를 받아들이는데서 외국투자자의 국적에 대한 제한은 차가운 평가이며, 투자자에게는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관계자들이 봄비였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영의에 의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적 회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리조장 청도아우크미수출입 주식유한공사 경기도 전람회에서는 외국투자자의 국적에 대한 제한은 차가운 평가이며, 투자자에게는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관계자들이 봄비였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영의에 의하여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 사이의 경제무역관계를 확대하고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경제적 회합으로 발전하고 있다.

굴착기와 대형 자동차를 비롯한 중형기계생산에서 자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중국의 서공집단유한공사에서 온 한 기업가는 평양봄철 국제상품전람회가 열리기 시작한 때부터 해마다 참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빠르게 발전하는 조선의 경제발전속도에 감탄하고 있다. 종형기계

을 하지 않으며 투자가의 출자비율은 합营 또는 합작방법에 합의하여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기업소득세, 거래세 혹은 영업세, 자원세, 도시경영세와 같은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원산시에는 송도원해수욕장과 명사십리해수욕장, 송도원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원산시에는 송도원해수욕장과 명사십리해수욕장, 송도원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성하고 예전하고 있다면서 원산시 중심부에 속박 및 봉사원 등 판광문화 휴식터와 강마호텔, 새달호텔, 송도원려관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이 갖추어졌다.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령폭포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판광장들을 형